

‘민주 대 비민주’... 13일간의 열전

6·13 공식 선거운동 스타트
후보들 출정식 본격 세몰이
유권자 관심 참여 이끌어야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31일 막을 올리면서 ‘13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여야 후보들과 무소속 후보들은 이날 각 선거 캠프별로 출정식을 하는 등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서면서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3·4·5면〉

선거운동 기간 중 광주와 전남 일부 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과 무소속 후보 등 비(非)민주 후보 간 유권자 표심압기를 위한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역에서의 높은 정당 지지율을 바탕으로 한 민주당의 독주에 제동을 걸기 위해 야당 후보들과 무소속 후보들이 사활을 걸고 ‘진검승부’에 나서고 있어 비(非)민주 후보들의 약진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다만, 이번 지방선거는 여당인 민주당의 높은 지지율 속에 남북정상회담 성공개최와 북미정상회담 개최 예정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대형 이슈에 파묻히면서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지 않아 저조한 투표율이 우려되고 있다.

◇선거운동 일제히 시작 =민주당 전남 도당은 30일 이개호 도당위원장이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고 총 457명 규모로 매머드급 선대위를 구성했다. 광주시당도 31일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서 선대위 출범식을 갖고 ‘6월 지방선거 압승’을 결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지난 27일 광주 선대위 발대식을 했고 전남도당은 선대위 구성을 마치고 일찌감치 선거운동 체비를 다져왔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23일 발대식과 공천자 대회를 하고 필승을 결의한데 이어, 31



오늘부터 지방선거 벽보 부착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30일 오후 광주시 남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선거 벽보를 정리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 6·13 지방선거 주요 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시사항
5월31일	목	선거기간 개시일
6월1일까지	금	선거 공보 제출 선거 벽보 철폐
6월1일~	금	선서인명부 확정
6월3일까지	일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서공보, 안내문 등)
6월8~9일	금·토	사전투표소 투표
6월13일	수	투표(06~20시) 개표(20시 이후)

일 당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박주선 의원 지역구인 광주 동구에서 출정식을 별도로 열 예정이다.

정의당도 선거운동 첫날인 31일 5·18 민주광장에서 광주시당 출정식을 갖는다. 민주당도 광주시의회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목표로 최근 선대위를 꾸렸다.

◇민주당 VS 비(非)민주 대결 치열 =광주와 전남에서는 여당인 민주당 후보들과 야당·무소속 후보 간 치열한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공천과정에서 각종 잡음이 일면서 이에 반발한 무소속 후보 연대로 이뤄지고 있고, 지역민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선거운동기간 ‘무소속’ 돌풍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 분위기 속에서 ‘압승’을 자신하고 있고, 지역 국회의원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는 바른미래당과 민주당도 ‘호남 뒷날’ 사수를 위해 일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경우, 자칫 향후 총선마저 장담할 수 없어 바른미래당과 민주당은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당의 모든 역량을 선거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

광주지역에서는 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이 유일하게 3자 대결을 펼치는 동구청장 선거구가 격전지로 손꼽히고 있고, 전남에서는 목포와 신안, 해남, 강진, 무안 등지에서 여·야와 무소속 후보들이 물러설 수 없는 한 판 승부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 당내 경선에 불복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들의 돌풍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다.

◇선거열기 고조시켜야 =이번 지방선거는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민주당 경선이 끝난 뒤 선거열기가 식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높은 정당 지지율 속에 민주당 독주 분위기가 선거 초반부터 이어진데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굵직 굵직한 대형 이슈들이 터져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풀뿌리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인만큼 각 후보들은 선거운동기간 중 지역경제 발전과 균형발전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 등 정책과 공약을 통해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야한다는 지적이다.

광주지역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은 1995년 제1회 64.8%, 제2회 41.5%, 제3회 42.4%, 제4회 46.3%, 제5회 49.8%, 제6회 57.1%다. 전남은 제1회 76.1%를 시작으로 제2회 68.2%, 제3회 65.6%, 제4회·제5회 각각 64.3%, 제6회 65.6% 등 전반적으로 광주보다 높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광주의 경우 자칫, 투표율 50%대로 떨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각 정당이 정책·공약 선거를 통해 유권자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권민기자 cki@kwangju.co.kr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김영철·폼페이오 ‘뉴욕 담판’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성공 개최 최종 조율할 듯



김영철 폼페이오

미국 뉴욕 방문 길에 오른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 부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급주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고위급회담에 나서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이들은 그동안 북미협상을 막후에서 지휘해온 ‘키맨’이자 정상의 의중을 누구보다 꿰뚫는 ‘복심’이라는 점에서 이번 ‘뉴욕 담판’은 두 정상으로부터 전달 받은 메시지를 토대로 북미정상회담의 큰 청사진을 그리는 목직화 사전 담판 자리로 볼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30일에 이어 31일까지 이를 연속 김 부위원장과 연세 회담을 하고 조율을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외교소식통은 “폼페이오 장관이 김 부위원장을 만나러 뉴욕으로 갈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고위급회담은 그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돼온 북미 간 접촉들을 집대성 해내는 정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에서 어느 정도 길을 확 터놓느냐에 따라 본격적인 북미 정상 간 대좌의 항배

도 좌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CVID)를 단기에 결판내려는 미국과 ‘단계적·동시적 조치’ 입장을 견지해온 북한 사이에 간극을 좁혀 비핵화 로드맵의 접점을 마련하느냐가 최대 관건으로 꼽힌다.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정의와 함께 핵 반출 및 사찰 등을 둘러싼 ‘비핵화 시간표’에 대한 큰 틀에서의 합의를 이뤄내느냐가 과제인 셈이다. 이 과정에서 일괄타결에 ‘신속한 기간’의 단계적 해법을 가미한 ‘트럼프 모델’이 양측간 절충의 기준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어느 정도 구체적 밑그림을 그려 내느냐와 함께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김 부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예방할 여부가. 이는 김 부위원장이 수도인 워싱턴DC로 이동하는 상황을 의미하기도 한다. /연합뉴스

중 조이롱 전기차 국내 판매 가능해졌다

광주 생산설비 투자는 답보

중국 조이롱 전기자동차가 광주시와의 투자협약(MOU)을 맺은 지 2년만에 한국 진출에 필요한 환경부의 인증을 받아 친환경 보조금을 지원받게 됐다. 하지만 전기자동차의 생산에 필요한 국토교통부의 인증, AS 및 판매망 확충 등 광주 공장 설립 및 생산 등을 위해서는 아직 많은 걸림돌이 남아 있다.

광주시는 16일 전기자동차 등 지방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이롱자동차 한국법인인 국내에 수입판매할 E6 미니 전기버스에 대당 3000만원 상당의 시비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환경부는 전기차 국고보조금 지급 기준에 따라 E6 전기차를 친환경 중형 버스로 규정하고 대당 6000만원의 국비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세계 친환경차 시장을 이끌고 있는 중국 BYD의 전기버스 eBus-7에 적용한 보조금 단가와 같다. 올해 배정된 국고보조

금은 170여대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E6는 전장 6m의 15인승 크기로, 마을 버스, 학원버스, 어린이집, 소규모 기관 단체 공영차량으로 수요가 예상된다.

고효율 리튬이온 배터리 탑재로 2시간 이내 충전으로 160km의 거리를 정속 주행할 수 있다. 영구자석식 동기모터를 후륜 차축에 장착해 최대 110Kw의 출력을 기반으로 최대 시속 110km와 25% 경사각의 등판 성능을 갖췄다. 차량 총중량은 4.5t이다.

차량 가격은 1억3000만~1억5000만원으로, 보조금을 제외하면 4000만~6000만원에 미니 전기버스를 구입할 수 있다.

지난 2016년 3월 MOU 체결 당시 2017년부터 E6 2000대 양산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전기승합차 2만대, 기타 차종 8만대를 양산하는 광주공장을 완성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일보
6·13 격전지를 가다 - 목포 문재인 바람 vs 박지원 텃밭 격돌 ▶5면
광주로 띄우는 그림 편지 - 박문수 사바디라리오스!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피부피로를 다스리는 매화의 힘으로 더 탄탄해진 생기를 누리다

설화수 설린크림

아무리 건강한 피부라도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피부피로를 관리하지 못하면 피부 노화가 이어집니다. 매일매일 지치지 않는 피부 생기로 차오르는 설화수 설린 강력한 항산화에너지를 함유한 매화성분이 피부 피로를 다스리고 건강한 탄력과 생기를 깨워 눈부신 피부를 선사합니다.

Sulwhasoo
BLOOMSTAY VITALIZING CREAM
설린크림

Sulwhasoo